



자연의 소리 로 전하는 풍류

▶ 도립국악원, '박상후의 옛대소리, 律和'

사부작거리는 이파리, 자연의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 오는 듯한 느낌의 악기 '대금'.

서용석류 대금산조 · 변청 시나위
씻김굿 중 길 닦음 등 선보여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무대

대금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삼국사기' 권 32 신라와 편에 '삼죽(三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삼죽은 세 개의 대나무 악기, 즉 소금·중금·대금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피리적(笛)을 따 '잣대'라 불리기도 했다. 통일신라 신문왕 때에는 신비한 잣대 '민파식적'이 있어 나라의 근심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고려 후기 문인들은 청아한 소리를 지닌

대금 연주를 즐기고 대금을 풍류의 상징으로 삼았으며,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 역시 대금을 애호했다고 한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은 대금만으로 오롯이 꾸며지는 무대 '박상후의 옛대소리, 律和'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박상후 단원은 제6회 원도 장보고 국악대전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 20호 대금정악 이수자로서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는 선이 굵고 힘 있는 소리가 특징인 대금산조, 즉흥적인 연주형식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변청 시나위, 무대 위의 연주로 승화된 씻김굿 중 길 닦음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첫 무대를 장식할 '서용석류 대금산조'는 다양한 조 변화와 짜임새 있는 가락으로 구성된 곡이다. 진양·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옛모리·동살풀이 등 한 시간 이상 연주되는 곡이기에 체력과 공력이 밀비탕 되어야 한다. 산조의 음악성을 충실히 느끼고자 하는 이들이 선호

한다. 이번 공연에선 진양에서 자진모리까지를 40분가량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 '변청 시나위'를 들려준다. 곡은 각각의 악기 연주자들이 각기 다른 선율을 즉흥적으로 연주함으로써 다성적 효과를 나타낸다. 곡은 아쟁연주자의 기량과 즉흥성을 기반으로 각 장단별로 조가 바뀌면서 장단의 흐름을 타게 되고 이에 대금 장단이 어우러진다. 무대의 대미는 '진도 씻김굿 중 길 닦음'으로 장식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인 이 곡은 땅자의 닦을 씻겨 그 닦이 극락왕생 하도록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산사람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기도로 표현하기도 한다. '진도 씻김굿의 마지막에 행해지는 '길 닦음'은 희로애라의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연주는 창사(당골·무너)와 기약연성에 인간의 음성이 더해지며 승화된 씻김굿의 매력을 표현한다. 공연 예약은 국악원 홈페이지(kukakwon.jb.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올 4분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작품 공모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원회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2017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의 4분기 작품을 공모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주영화제작소의 촬영장비, 색보정, 디지털 마스터링과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등 보유시설을 활용,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기별로 행해진다. 지원 대상은 영화·영상 연출 감독 및 제작사에서 준비 중인 작품 및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단편영화, 저예산예술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로 전국의 독립영화와 영상물을 지원한다.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의 최근 작품인 박배일 감독작 '소성리'.

4분기에는 총 7편을 선정(촬영장비 3편, 색보정 & 사운드 3편, DCP 1편)한다. 신청인별 1개 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4일~28일 오후 3시까지며,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theque.jiff.or.kr)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jca.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의 제작지원작 중 최근 작품인 김진아 감독의 '숨바꼭질'과 박배일 감독의 '소성리'는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 초청 및 수상으로 이번 사업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여성 고용유지 지원 · 직장문화 개선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예방사업 내달까지 운영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직장문화 개선을 위하여 '2017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예방사업'을 11~12월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수립된 경력단절예방 사업은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영상제작 및 지역방송 송출 등 총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먼저 여성고용유지지원 분야는 경력단절예방상담 및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취업자 간담회, 사례공모 및 토크콘서트, 경력단절예방 및 복귀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직장적응을 돕고,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속감과 자존감을 향상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또한 직장문화 개선분야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직장문화개선 워크숍, 여성친화기업문화 우수사례공유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통해 직장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경력단절예방 협력망분야에선 경력단절예방 협력망, 새일센터 종사자 및 매뉴얼제작교육을 실시한다. 협력망을 통하여 전북지역 내 여성들의 지속적 근로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의 확산을 위한 영상제작 및 지역방

송을 송출하는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수미 센터장은 "도내 새일센터 등을 중심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화(063-254-3610)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민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중정길 17)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탁기관은 군산시민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예술사업,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군산시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로, 최근 3년 이내 군산시에서 문화예술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수탁기관 공개모집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제출서류 등의 세부 내용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산=김법관 기자

'내가 제일 어려워' ... 전주시, 24일까지 어른동화 원화 전시

전주시는 오는 24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작은 얘기, 큰 감동'을 주제로 어른동화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의 원화 12점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나는 내가 제일 어렵다'는 일도, 사랑도, 삶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고민하며 마음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여성들의 심리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다.

저자인 '우르슬라 누버'는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왜 후회와 자책으로 힘들어하는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마침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어른동화 전시회는 문학동네 출판사 후원으로 원화를 대여해 진행하는 것으로, 시청 직원들과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



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하고 책을 만드는 원본과 원판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문학과 예술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인문학적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김민근 기자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독 · 광고문의 288-9700